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신수회 회장상)

최봉중 (대전교도소)

나유타 <하>

처음 세종문화회관에 들어서니 내가 이 곳에서 노래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다. 하지만 리허설을 하면서 시립극단과 단과 연합합창단의 노래가 잘 맞지 않아 무척 걱정스러웠다. 꼬박 이틀간 잠을 자지 못해서 목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았다. 두근대는 가슴과 더해만 가는 걱정엔 불안은 누를 길이 없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내 순서가 다가왔을 때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어렵게 음악을 배웠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노래했다. 음악에 몰입될 수록 그동안 어려웠던 준비과정도 잊은 채 오직 노래의 가사와 함께 모든 생각들이 하나가 되는 듯했다.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게 행사를 끝낸 뒤 쏟아진 많은 사람들의 격려한 마디 한 마디에 16년 교도소 생활의 설움과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라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로소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제 겨우 한발짝 걸음을 옮긴 것이었다.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마치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내가 하나의 일을 하고 나면 두번째의 길이 열리고, 둘을 이루고 나면 세번째의 길이 열린 것 같았다. 힘들고 지칠 때 손을 잡아주시고 바른 길을 일러 주신 부처님과 여러 고마운 분들의 공덕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것을 인연법이라 하든가. 보이지는 않지만 고맙기 그지없는 인연의 손길에 불법(佛法)의 지중함도 뼈저리게 느꼈다.

사실 어려서 내에게는 음악적 소질이 없었고 그것을 기울만한 환경도 아니었다. 다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오직 한번의 기회가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피를 자아내는 고통과 육체적인 통증을 수반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남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늦도록 같은 곡을 수백번씩 반복해



그림 · 김홍민

새로운 출발...인연의 손길에 감사

제대로 공부해 희망노래 만들고 싶어

16년 옥바라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서 연습했고, 동료들의 숙면에 방해될까봐 소리도 내지 않는 종이 건반을 눌러대야 했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만큼 격정해 주는 사람도 많았다. 나의 음악 실력은 수십 년동안 실력을 쌓아온 대가들에 비하면 미천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정도라도 그 기간 내에

이루어낼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이상은 앞으로의 노력과 여건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오로지 독학으로 공부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음악에 대한 안목과 실력을 키워 온 터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기회가 된다면 음악대학에 입학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고, 이를 계기로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 내 가능성은 어디가 끝인지 알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16년 전의 나처럼,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 또한 이 죄인이 밝은 세상, 귀한 자리에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에도 보답하고 싶다.

끝으로 16년간 못난 자식 위해 옥바라지 하시느라 병과 주름을 얻은 어머니를 생각하니 저미어 오는 가슴을 감당할 수 없어,

어머니의 아픈 가슴 한 칸이라도 낮게 하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어머니!

어머니란 말은 언제 불러봐도 가슴을 울립니다. 어머니, 제가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식당일 하시던 어머니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셔서 절창에 매달려 통곡하셨습니다. 그리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6년 만에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만남을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네요. 이곳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근심 걱정엔 눈물로 사시다 병까지 얻으신 어머니. 아버지 없이 아들만 삼형제이다 보니 모두 무뎠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도 해드린 적이 없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어서 건강 찾으세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래야 이 아들이 어머니 소원처럼 밝은 세상에서 부처님의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리지요. 제가 이곳에서 가장 바라는 그것이 어머니 건강이란 걸 아시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글)

힐러이 수행일기 <상>



이종린
종익소아과 원장

대학생 시절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불교를 알게 된 지 햇수로 22년. 남들 하듯 법회도 나가고 좌선한다며 단전에 힘 주고 앉아서 보고, 염불도 진언도 독경도 해 보았지만 어디까지나 흉내였을 뿐 나의 수행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헤쳐 나갈 힘이 길러질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남은 나를 사랑하시어 내 곁에 오시는가. 불혹의 나이에 한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던 1994년 여름, 자나 깨나 그리워하던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했다. 화두를 못 꺼져 몇 이승지기를 증생으로 떠돌더라도 오로지 부처님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은 유위법이라 덧없고 허망하며 허물어지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 부처님이야 시공을 뛰어넘어 늘 존재하고 옆에 계신 분 아니신가. 그리워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부처님께 항복하고 그리움이 일 때마다 불러도 다함없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공양구 아닌 것이 없었다. <금강경>을 읽을 때도 ‘보현행원품’을 읽을 때도 ‘부처님, 제가 읽는 이 경 소리가 사방세계 일체 증생들의 가슴에 스며들어 이 깊은 뜻 이해하고 모든 증생들이 크게 기뻐하여 보리심 일으키길 기원드립니다.’ 하며 원(願)부터 공양드린 후 일정한 시간에 매일 쉬지 않고 일과수행을 했다.

불혹 나이에 다시 발심 “아상 버리자”
금강경 · 보현행원품 읽으며 ‘환희심’

부처님을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록의 싱그러움과 함께 눈을 뜨고 바라보니 그리운 이는 어느 한 곳에만 있지 않았다. <금강경>에서 그렇게 형상오로만 부처를 찾지 말라 하셨건만 불어오는 불바람, 갖가지 스치는 장미꽃 향기가 다님의 얼굴이요, 님의 소리 아닌 것이 없지 않은가. 한량없는 부처님께 그리움을 공양드리던 어느 날 문득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광수공양원(廣修供養願)이 생각났다. “선남자야,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증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증생을 설수하는 공양이며, 증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이 법공양 일곱 가지는 큰 가르침을 주었다. 형상을 떠나 우리의 본성을 밝히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법공양이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위 가 바로 법공양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부처님의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뜻도 모르던 <금강경> 문구들이 하나 둘씩 와 닿기 시작했다. ‘행원품’도 마찬가지였다. 광수공양만 알았는데 예경제 불, 청정여래, 참회업장 등도 어느 사이엔가 조금씩 와 닿더니 마음을 서서히 밝혀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부러인가 가슴에 환희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이들이 부처님으로 보였단 어느 날 문득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광수공양원(廣修供養願)이 생각났다. “선남자야,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증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증생을 설수하는 공양이며, 증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행원은 부수적으로 여러 공덕을 안겨 주었다. 마음의 안정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마음의 안정이 저절로 왔다. 아상(我相)을 없애려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일체 증생을 칭찬하고 공경하며 만나는 이마다 섬기고 공양하는 보현행은 찾지도 않았고 빈 적도 없는 무수한 반가운 분들을 그렇게 모셔 오고 있었다. 행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밀려오는 깨달음이 한도 끝도 없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www.mahamall.co.kr 다양한 연등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을 밝힙시다

www.mahamall.co.kr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월등 ▶ 사이즈 : 32cm X 32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어), 오색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 지름 : 23cm(大)18cm(中)15cm(小)
▶ 색 상 : 황금, 연분홍, 진분홍, 빨강, 흰색(영어)

종 등 ▶ 사이즈 : 40cm X 27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팔각조림등 ▶ 사이즈 : 높이26cm 폭28cm 입구11cm
▶ 색 상 : 핑크, 분홍노랑, 오렌지, 성도일 노랑, 분홍빨강 등

비단팔모접등 ▶ 사이즈 : 높이28cm 폭24cm 입구11cm
▶ 색 상 : 연분홍, 노랑, 연초록

비닐팔모접등 ▶ 사이즈 : 높이28cm 폭 24cm 입구11cm
▶ 색 상 : 핑크, 노랑, 연녹, 파랑

팔모조림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 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파랑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연등간격(규격참조) 고추소켓 발반방수소켓

▶ 특 징 : 안전검사를 완료한 전선(KS인증) 100% 사용
연등전선구입시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전선인지 확인하십시오.

▶ 등간격 : 1M, 2M, 3M, 4M, 5M * 기타 규격 별도 주문
연등의 간격은 등1개당 간격을 말합니다.

마하몰에서 빠르고 편하게 연등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주문 전화 : 02)732-1520